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60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9.25~2025.10.0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시스템, 서비스, 그린수소, 혁신, 청년
경제·관광	추석, 관광객, 농가, 항공, 가격
지역·사회	추석, 병원, 장애인, 감귤, 범죄

※ 분석 기간 : 25.09.25.~25.10.01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시스템	-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제주도의 대응 - 제주형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스템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국 유치
	서비스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 저소득층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그린수소	-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 수소 인프라 확대 및 상용화 -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혁신	- 제주 RISE 사업의 초기 성과 - AI·디지털 대전환 사업 선정 - 응급의료체계 혁신 성과
	청년	-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심화 - 청년정책 실효성 논의 활발 - 청년 참여 및 지원사업 확대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추석	- 추석 연휴 제주 방문객 33만 명 상회 - 차례상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 여전 - 명절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관광객	- 내국인 감소 속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발 - 체험형 웰니스 관광 상품으로 매력 제고 - 관광객 편의 증진 위한 인프라 혁신
	농가	- 이상기후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 심각 -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스마트 기술 도입 및 인력난 해소 노력
	항공	- 추석 연휴 항공편 증편 및 이용객 급증 - 국제선 노선 확대 및 관광객 유치 박차 - 항공 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불만
	가격	- 추석 차례상 비용 상승, 품목별 편차 심화 -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미분양 사태 - 농산물 가격 안정제 통한 농가 소득 보호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추석	- 추석 연휴 특별 종합 대책 - 연휴 기간 날씨 및 교통 - 명절맞이 나눔과 이웃 사랑
	병원	- AI 기반 스마트 의료 도입 - 병원 내 화재 안전 문제 - 의료 서비스 및 인력 현안
	장애인	- 대중교통 이용의 구조적 장벽 - 장애인 대상 범죄 및 권익 - 장애인 지원 및 교육 활동
	감귤	- 강제 착색 및 불량 감귤 유통 - 제2공항 건설과 조류 충돌 위험 -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범죄	- 대규모 온라인 금융 사기 - 공직 기강 해이 사건 - 교제폭력 및 노인학대 심화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9월 25일~10월 1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1,728건임
 - 정치·행정 분야 751건, 경제·관광 390건, 지역·사회 587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시스템, 서비스, 그린수소, 혁신, 청년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시스템	-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제주도의 대응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중앙 행정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제주에서도 79개 온라인 행정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등 도민 불편 초래. 제주도는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수기 처리, 대체 절차 등 임시 대응 방안 마련함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 자체 행정전산망의 완전 이중화 방안 검토에 착수함. 재난복구(DR) 이중화 시스템이 일부 중요 데이터에만 국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산실 내 장비 분리, 듀얼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대책 검토
-------	-----	--

정치·행정	시스템	- 제주형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스템 · 제주시가 구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스템의 전국적 우수성을 입증함. 용인시, 양평군 등 타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주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인허가 설계검토부터 준공검사까지의 행정 실무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임 ·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제주시의 선도적 노력의 결과물임. 전국 최초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제정 및 사전검사 의무화 등 엄격한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했으며, 제도 시행 후 설치된 시설 대부분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며 성과 입증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국 유치 ·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로 추진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핵심 지상 시설을 제주에 유치함. 제주도와 우주항공청은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에 지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KPS 지상시스템은 위성 운영에 필요한 통합운영센터, 위성관제센터, 안테나국, 감시국 등으로 구성됨. 우주 관련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제주 우주산업 생태계 확장 및 전문 인력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서비스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 10월 1일부터 7개 시범지역 내 16개 의원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했으며,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록을 시작함 · 건강평가, 만성질환 관리, 방문 진료 등 10대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을 기대. 오영훈 지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가 지원사업 선정을 건의함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 정부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함. 제주지역 지급 대상자는 약 60만 명이며,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접수함 · 지급 수단으로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선택이 가능함. 제주도는 '탐나는전과 함께하는 소비챌린지' 등 소비쿠폰과 연계한 행사를 통해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국가 전산망 마비로 온라인 이의신청은 일시 중단됨 - 저소득층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시행됨. 자활근로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 시장에 취·창업하여 탈수급한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는

정치·행정	서비스	것을 목표로 함 ·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이상 근속 시 총 150만 원을 단계별로 지급함. 10월부터 시행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그린수소	-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됨. 중국, 노르웨이 등 9개국 100여 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제주의 성공모델을 공유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해법을 모색함 · 포럼을 통해 RE100 달성과 제주 탄소중립 모델의 세계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선포함.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린수소의 경제성 확보 방안, 저장·운송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 등 다양한 전략을 논의하며 국제 협력의 장을 마련함 - 수소 인프라 확대 및 상용화 · 제주시 도두동에 제주 2호 이동형 수소충전소가 상업 운영을 시작함. 함덕 1호 충전소와 동일하게 행원 생산기지에서 만든 그린수소를 kg당 1만5000원에 판매하며, 제주시 동지역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됨 · 2026년 서귀포시에 3호 충전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수소승용차 민간 보급 사업도 추진할 예정임. 현대차그룹과 협력하여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트램 도입, 항만 탈탄소 등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 -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 국회수소경제포럼과 공동으로 특별세션을 개최하여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대전환' 방안을 논의함.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모델을 제시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함 ·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그린수소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제주도가 구축한 3.3MW 규모의 그린수소 전주기 모델을 나미비아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함. 또한 한국남부발전, 노르웨이 넬(Nel), 가스안전공사 등과도 협력 관계를 모색함
	혁신	- 제주 RISE 사업의 초기 성과 ·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 주도로 통합·재설계한 전국 최초의 혁신 모델로, 제주도 내 3개 대학과 사업단을 구성해 인재 양성, 투자 유치, 창업 등 핵심 사업을 추진 중임 · 출범 첫해에 국내외 60여 개 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1126명이 참여한 '런케이션(배움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함. 또한 창업 지원, 연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9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 - AI·디지털 대전환 사업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공모사업에 제주도가 최종 선정됨. 이에 따라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해 총 233억 원을 투입하여 'AI+바이오(B)'를 결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예정임

정치·행정	혁신	· '제주 게놈프로젝트'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K-푸드, K-뷰티, K-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 특히 제주형 건강주치의와 연계한 실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AI 도입 확산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함 - 응급의료체계 혁신 성과 · 2024년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관련 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으로 크게 개선됨. 특히 응급실 도착부터 의사의 최초 진료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이 전년 43.3분에서 20.8분으로 대폭 단축되는 성과를 보임. · 제주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조기 출범과 소방·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의 결과임. 또한 제주형 이송지침 마련,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등 혁신적 정책을 통해 '응급실 뱅뱅이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함
	청년	-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심화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19~34세 청년 인구는 2013명으로 집계됨. 2019년 순유출로 전환된 이후 6년간 누적 순유출 인구가 8526명에 달하는 등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제주연구원 조사 결과, 청년들이 제주 이주를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요인'이 꼽힘. 더 많은 소득과 좋은 취업·창업 기회를 찾아 제주를 떠나는 현상이 뚜렷하며, 높은 주거비 부담 역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청년정책 실효성 논의 활발 · 도의회 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함. 설문 결과,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 인지도가 낮아 체감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됨 ·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분야는 '취업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남.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함 - 청년 참여 및 지원사업 확대 · 서귀포시가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통해 '숲 속 오리엔티어링' 등 5개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실제 사업으로 추진함.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있음 · 제주시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함.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한 농지의 임대료 5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이어드림지원금'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혜택을 제공함

- 경제 · 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추석, 관광객, 농가, 항공, 가격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 · 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 · 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추석	- 추석 연휴 제주 방문객 33만 명 상회 · 개천절과 한글날이 포함된 최장 10일의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33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0.3% 증가한 수치로, 국제선 항공편 확대 및 선박 이용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연휴 초반인 10월 3일과 4일에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평균 약 4만 8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임.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고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혼잡 완화에 나설 계획임 - 차례상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 여전 ·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은 약 32만 1400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며, 품목별 가격 변동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여름철 폭염과 가축 질병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대파, 대추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 반면 사과, 무 등 일부 품목은 공급이 안정되며 가격이 하락해 품목별 희비가 엇갈림 - 명절 맛이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도내 5개 시장에서 진행됨. 또한 지역화폐 '탐나는'
-------	----	---

경제·관광	추석	전'과 연계한 소비 챌린지, 신규 가맹점 이벤트 등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가 개최됨 · 제주 드림타워, 신화월드 등 주요 관광 시설에서는 K-컬처 공연,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
	관광객	- 내국인 감소 속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발 · 올해 제주를 찾은 누적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으나, 지난해보다 9일 늦은 기록으로 내국인 관광객 감소가 영향을 미침. 반면 중국, 대만 등 중화권 중심의 외국인 관광객은 크게 증가하며 내국인 감소분을 일부 상쇄함 · 정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전국 무비자 한시 허용 조치에 따라, 제주의 무비자 이점이 희석되면서 관광객 분산에 대한 우려와 방한 수요 증가에 따른 제주 유입 기대감이 공존함. 이에 도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를 추진 중임 - 체험형 웰니스 관광 상품으로 매력 제고 · 제주의 자연 속에서 하이킹, 캠핑 등을 즐기는 체류형 아웃도어 행사인 '고아웃 슈퍼하이킹'이 지역 마을과 상생하는 모델로 주목받음. 참가자들이 마을에 머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관광 가치를 실천함 · 호텔신라와 제주관광공사가 협력해 어린이 대상 생태 체험 프로그램 '제주 프로미스 키퍼'를 선보임. 또한,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서귀포 치유의숲 등 4곳의 웰니스 관광지에서 3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섬 - 관광객 편의 증진 위한 인프라 혁신 · 서귀포 성산 일대에 핸들과 페달이 없는 레벨4 수준의 관광형 자율주행버스 '일출봉 GO!'가 시범 운영을 시작함. 이는 렌터카 의존도를 낮추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며 관광객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 최초로 전기 유람선 '제주사랑호'가 성산포항에서 운항을 개시하여 소음 없는 친환경 해상 관광 시대를 열었음. 또한, 1인 여행업체를 위한 공유오피스 지원으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함
	농가	- 이상기후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 심각 · 여름철 고온과 폭염의 영향으로 레드향의 과실이 터지는 '열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열과율이 74.7%에 달했으며, 올해도 50~70%의 피해를 본 농가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함 · 열과 피해는 생리장해로 분류되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됨. 이에 일부 농가들은 레드향 재배를 포기하고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고 있어, 향후 타 품종의 과잉생산 우려까지 제기됨 -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제주도는 월동채소 가격 하락 시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농가를 모집함. 내년부터는 가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신규 가입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료의 50%(최대 100만 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 또한,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

경제·관광	농가	해 홈쇼핑, 온라인몰 등에 2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차액을 농가에 지원함 - 스마트 기술 도입 및 인력난 해소 노력 · 경험에 의존하던 감귤 수확 시기 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함. 농가에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전용 앱을 제공해 과학적 영농을 지원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임 · 감귤 수확철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4만 6000여 명의 영농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농촌 체험과 일손돕기를 결합한 '농케이션' 사업을 통해 도외 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섬
	항공	- 추석 연휴 항공편 증편 및 이용객 급증 · 추석 연휴 기간 국내선 항공편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616편이 운항되며, 국제선도 19.1% 늘어난 218편이 운항됨. 이로 인해 연휴 기간 제주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대인 10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연휴 기간 만석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며, 일부 날짜와 시간대 항공권은 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항 측은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해 혼잡 완화에 나서고 있음 - 국제선 노선 확대 및 관광객 유치 박차 · 진에어가 10월 23일부터 제주-타이베이 노선을 주 7회 일정으로 재운항함. 이는 제주를 방문하는 대만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증가하는 대만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 제주관광협회는 필리핀 최대 여행업 단체인 필리핀여행업협회(PTAA)와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박람회 참가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음 - 항공 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불만 · 제주항공은 세계 수어의 날을 맞아 기내 특화 수어 교육을 받은 승무원이 항공 안전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함. 이는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배리어프리 서비스 구축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제주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이 20%에 육박하며 전국 주요 공항 중 높은 수준을 기록해 이용객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일부 저비용항공사(LCC) 기종의 좌석 면적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승객 편의성 개선이 요구됨
	가격	- 추석 차례상 비용 상승, 품목별 편차 심화 ·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이 재래시장 기준 32만 1400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상승함.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0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제주의 높은 물가를 반영함 · 돼지고기(오겹살)는 공급량 감소로 26.7% 급등했으며, 대파(66.7%)와 대추(40.8%) 등도 큰 폭으로 오름. 반면, 사과(-16.7%)와 무(-40.0%) 등은 가격이 하락해 품목 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미분양 사태 · 제주시 애월읍의 '엘리프 애월' 아파트가 높은 분양가로 인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자, 2억 원을 할인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음. 이는 지역 외곽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경제·관광	· 8월 말 기준 제주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2621가구로 증가했으며, 특히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물량도 1600여 가구에 달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주택 매매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짐 - 농산물 가격 안정제 통한 농가 소득 보호 · 제주도는 가격 변동성이 큰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를 대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함.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함. ·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소비자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차액을 생산 농가에 지원하는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함. 이를 통해 농가는 적정 가격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마련함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추석, 병원, 장애인, 감귤, 범죄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추석	- 추석 연휴 특별 종합 대책 ·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함. 경찰, 소방, 해경 등은 연휴 기간 동안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하여 범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화재 및 해양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임. 또한,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
-------	----	---

지역·사회	추석	계를 가동하고,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일부 구역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함 · 제주시는 연휴 기간 공중화장실 29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안전본부는 공항과 월드컵경기장에서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함. 이는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연휴 기간 날씨 및 교통 · 추석 연휴 초반인 10월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제주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됨. 특히 산지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 가능성이 있으며, 강풍 및 풍랑특보가 발효될 수 있어 항공 및 해상 교통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됨. 연휴 기간 약 9만 명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 비가 그친 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추석 당일인 6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보다 4~7℃ 높겠으며,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함. 7일부터 9일까지는 바닷물 수위가 높은 대조기간으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음 - 명절맞이 나눔과 이웃 사랑 ·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짐. '노고록 아저씨'로 알려진 익명의 기부자는 올해도 쌀 100포를 기탁하며 27년째 선행을 이어갔고, 드림타워 카지노, 제주위미농협 등 여러 기업과 단체도 성금 및 물품 기부에 동참함. 이러한 기부 물품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임 · 제주중앙지하상가 조합원들은 위로금 200만 원을, 이도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생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음. 서귀포시는 179개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약 6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밝힘
	병원	- AI 기반 스마트 의료 도입 · 제주한라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병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의 생체 신호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 이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업무 효율성과 진료 정확성을 높여 환자 중심의 디지털 케어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은 AI 기반 중증응급 심혈관계질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추진 중임.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촬영한 심전도를 AI가 20초 만에 분석하여 병원으로 전송하면, 병원은 환자 도착 전 치료 준비를 마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음 - 병원 내 화재 안전 문제 · 제주대학교병원 1층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시간여 만에 진화됨. 당시 병원에는 370여 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으나, 병원 측의 신속한 병실 대기 안내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LED 흡착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제주시 한림읍의 한 리조트에서도 객실 LED 전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역·사회	병원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10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짐. 14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큰 부상은 없었으며, 불은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됨 - 의료 서비스 및 인력 현안 · 의정 갈등 이후 제주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뱅뱅이'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에는 468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약 4% 늘었으며, 특히 3시간 이상 이송이 지연된 사례는 5건에서 14건으로 크게 증가해 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제주대학교병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하반기 우수 의료진 4명을 신규 영입함. 또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교육진료동 신축 사업과 전공의 복귀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임
	장애인	- 대중교통 이용의 구조적 장벽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모니터링 결과, 제주시 저상버스 운행 정류소 471곳 중 17.6%가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연석 단차 문제를 안고 있음. 또한 휠체어 회전 공간이 부족한 곳도 22.1%에 달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는 전무하여 장애인의 독립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구조적으로 거부당하고 있음 · 저상버스 운행 실태 조사 결과, 운전기사가 휠체어 고정장치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70%에 달했으며, 73%는 정류소가 아닌 도로 한가운데서 승하차하여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됨. 이는 단순한 시설 미비를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인권 문제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장애인 대상 범죄 및 권익 ·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2024년 한 해 동안 111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65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됨. 피해자 대다수인 55명이 발달장애인이었으며, 18세 미만 장애 아동 학대도 10건 발생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미성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발생하여 중형이 선고됨 · 10월에는 '정신건강의 날', '흰지팡이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임. 제주도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 장애인 지원 및 교육 활동 · 제주대학교병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의무구매 실적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중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법정 기준인 0.8%에 한참 못 미치는 0.02%의 구매율을 보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여가문화시설 100곳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이 출입 가능한 곳은 47곳에 불과하다고 발표함.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및 정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음

지역·사회	감귤	- 강제 착색 및 불량 감귤 유통 · 추석 대목을 앞두고 화학약품을 이용해 극조생 감귤을 강제 후숙·착색하여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됨. 해당 선과장은 생장조절제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약품을 감귤 600kg에 뿌려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는 감귤의 당도를 떨어뜨리고 부패율을 높이는 불법 행위임 · 자치경찰은 상품 기준에 미달하는 감귤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행정시와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임. 올해 감귤 생산량은 적지만 품질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유통 행위가 초기 감귤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제2공항 건설과 조류 충돌 위험 · 제2공항 반대 측은 공항 예정지 3km 이내에 약 630만㎡에 달하는 대규모 감귤 과수원이 밀집해 있어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함. 새들이 감귤을 먹기 위해 모여드는 만큼,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임 · 국토교통부의 '조류 충돌위험 감소 기준'에는 사과·배·감 과수원이 공항 주변 제한 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나 감귤 과수원은 제외됨. 이에 반대 단체는 국토부가 감귤 과수원을 제한 시설에서 제외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함 -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마늘 신품종 육성에 나섬. 최근 이상기후로 마늘의 2차생장(벌마늘) 피해가 커지자, 기존 유전자원에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법을 적용해 기후 적응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할 계획임. 덜 매우면서 수량성이 높은 3개 계통을 선발했으며, 2029년 품종보호 출원을 목표로 함 · 제주농업기술원은 메밀꽃 축제와 연계하여 제주 전통 감물염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는 지역 농촌자원인 감과 메밀을 문화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계승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임
	범죄	- 대규모 온라인 금융 사기 ·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하여 '로맨스 스캠'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국내 총책 등 11명이 경찰에 검거됨. 이들은 6개월간 288명을 상대로 334억 원을 가로챘으며, 피해금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탁됨. 검거된 피의자 중 9명은 제주도민인 것으로 확인됨 · 피해자들은 허위 주식 및 코인 투자거래소, 온라인 쇼핑몰 링크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에 당했으며, 1인당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16억 원에 달함. 경찰은 전국 사건을 병합해 여죄를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중국 총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 - 공직 기강 해이 사건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함.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들에게 '경고' 조치를 권고했고,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함

지역·사회	범죄	·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집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음.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임. 또한, 7년간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 5천만 원을 횡령한 제주시청 직원이 구속 송치되는 등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 문제가 드러남 - 교제폭력 및 노인학대 심화 · 6년간 교제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됨. 이들은 과거 5차례 교제폭력 신고 이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보호 대상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돼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제주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1500건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만 350건이 접수됨. 가해자 대부분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었으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